

보 도 일 자

2018.07.23.(월) 배포즉시

2018년 지배구조 등급 부여 및 2017년 ESG 등급 수시 조정

1. 2018년 지배구조 등급 부여 및 공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조명현)은 국내 기업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하여 2018년도 지배구조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함
 - 지배구조 등급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지배구조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
 - 올해는 총 930사(일반 상장회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7 사업연도의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배구조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2018.7.10.)함

2018년도 주요 특징 -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모형 제정 및 등급 별도 부여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8년부터 **금융회사(비상장회사 포함)에 특화된 지배구조 평가모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을 부여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부 적용사 및 상장 금융사(총 87사)를 대상으로 평가 수행
 - 지배구조 평가방법론은 기존의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량평가(기본평가 및 심화평가) 및 정성평가(심층인터뷰)로 구성됨
 - 다만 정량평가 중 특히 기본평가 모형은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모형을 새로이 제정하여 기존 평가모형과 크게 차별화됨
 - 전체 156개 평가지표 중 기존 지배구조 평가모형과 동일한 지표는 20개에 불과함

2018년 등급 부여 결과

- (일반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CoE) 도입 확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반면, 심화평가 감점요인 확대 등으로 2017년도와 유사한 등급 분포를 보임
 - 지배구조가 우량한 'A' 등급 이상의 기업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상당수 기업(78%)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B 이하 등급)으로 나타나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금융회사) 금융회사가 상위 등급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던 2017년과 달리 2018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평가등급은 각 등급에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 전체 평균 등급은 'B+'이며, 지배구조 수준이 양호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A+', 'A', 'B+' 기업의 비중이 대다수(70.1%)를 차지함
- ※ 금년에 금융회사에 적용된 평가 모형은 2017년의 평가 모형과 상이하여 작년 평가등급과의 직접적 비교는 어려움

<2018년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

등급	일반 상장회사**		금융회사***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S	0	0%	0	0.0%
A+	6	1%	3	3.4%
A	19	3%	23	26.4%
B+	126	18%	35	40.2%
B	289	42%	17	19.5%
C	219	32%	8	9.2%
D	26	4%	1	1.1%
계	685	100%	87	100.0%

* 기업별 등급정보는 KCGS 홈페이지(http://www.cgs.or.kr/business/esg_tab04.jsp)에서 확인 가능함

** 일반 상장회사 843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685사만을 제시함

*** 금융회사의 경우 금년도에는 'A' 등급 이상 기업 명단만 공개하고, 2020년부터 전체 등급을 공개할 계획임

2. 2017년 ESG 등급 수시 조정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7월 10일 지배구조등급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총 5사의 2017년 사회부문(S) 등급을 하향 결정함
- 2018년 상반기 동안 사회책임경영 측면에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상당히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여 등급에 반영함

붙임1. 2018년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

붙임2. 2017년 ESG 등급 수시 조정

첨부. 2018년 지배구조 등급별 기업 리스트

※ 담당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1팀(일반상장사)	김진성 팀장	(02-6951-3701, jskim@cgs.or.kr)
	정유진 파트장	(02-6951-3706, yjjung@cgs.or.kr)
분석3팀(금융회사)	윤채영 팀장	(02-6951-3711, cyyoona@cgs.or.kr)
	유고은 선임연구원	(02-6951-3712, blessing@cgs.or.kr)

2018년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

2018.0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목차>

I. 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 개요	1
1. 지배구조 평가 개요	1
2. 지배구조 등급	3
 II. 일반 상장회사 지배구조 등급	4
1. 2018년 지배구조 등급 현황	4
2. 자산규모별 등급 현황	6
3. 대규모기업집단별 등급 현황	7
 III.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10
1.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모형 개발 목적	10
2.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모형 요약	10
3.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기준	11
4.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요약	11

I. 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 개요

1. 지배구조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지배구조 평가대상 회사를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함 (총 930사)

- 올해부터 상장금융사 및 금융사지배구조법 전부 적용대상 87사는 별도 금융회사 평가모형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함

구분	대상기업	제외
일반 상장회사 (843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 코스닥 100 구성종목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 R 펀드 자문서비스 제공 기관 요청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상장회사 - 특수목적법인 등 페이퍼컴퍼니 -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금융회사 (87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금융사 - 금융지배구조법 전부 적용회사 	

□ (평가절차) 기업 관련 공시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 실시 후, 기업 피드백 및 이사회 인터뷰 절차를 통해 평가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함

① 평가 준비(3월)	평가대상 기업 확정 및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
▼	
② 정량평가(~5월)	기업 공시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검증을 실시
▼	
③ 기업 피드백(~6월)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 담당자와 양방향 피드백 실시
▼	
④ 정성평가*(~7월 초)	1차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 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이사회 실제 운영 관행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고 등급에 고려 (2017년 최초 도입)
▼	
⑤ 등급 부여	평가결과와 함께 상반기 등급조정 이슈를 검토한 후 최종 등급 부여








<표 1> 2018년 지배구조 평가모형(정량평가) 비교

일반 상장회사 평가모형		금융회사 평가모형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Ⅰ. 주주권리 보호	가. 주주권리의 보호 및 행사 편의성	Ⅰ. 주주권리 보호	가. 주주권리의 보호 및 행사 편의성
	나. 소유구조		나. 소유구조
	다. 경영과실 배분		다. 경영과실 배분
	라. 계열회사와의 거래		라. 계열회사와의 거래
Ⅱ. 이사회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Ⅱ. 이사회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나. 이사회 평가 및 보수		나. 임원(최고경영자 제외)의 선임
	다. 이사회내 위원회		
		Ⅲ. 최고경영자	-
		Ⅳ. 보수	가. 보수위원회
			나. 보수 체계
		Ⅴ.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위원회
			나. 위험관리
Ⅲ. 감사기구	가. 감사기구 구성	Ⅵ.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가. 감사기구 구성
	나. 감사기구 운영		나. 감사기구 운영
			다. 내부통제
Ⅳ. 공시	가. 공시 일반	Ⅶ. 공시	가. 공시일반
	나. 홈페이지 정보공개		나. 연차보고서
			다. 홈페이지 정보공개

2. 지배구조 등급

- 지배구조 등급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배구조 등급은 S, A+, A, B+, B, C, D 7 등급으로 분류함 (<표 2> 참조)

<표 2> 지배구조 등급 명칭 및 의미

등급	의미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배구조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배구조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배구조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배구조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배구조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배구조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됨

- 평가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등급위원회가 등급을 부여함
 - 평가대상기간(2017 사업연도)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심의하고 등급을 조정하여 부여함
- 지배구조 평가결과는 KRX 책임투자지수(RI) 종목구성에 활용됨
 - KRX Governance Leaders 100 : 지배구조 성과가 우수한 기업 100사

II. 일반 상장회사 지배구조 등급

1. 2018년 지배구조 등급 현황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등급은 2017년 등급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 지배구조 수준이 우수한 기업들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평가대상기업의 78%가 취약한 지배구조 수준(‘B’ 이하 등급)을 보여 상장회사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A+’ 등급과 ‘A’ 등급 기업은 전년 대비 각각 3사, 2사 증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사회 운영 관행이 개선되었고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등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17년부터 정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량기준에 따른 등급 부여는 A를 한도로 설정하고 A 이상 회사 중 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한해 상위 등급(A+, S등급)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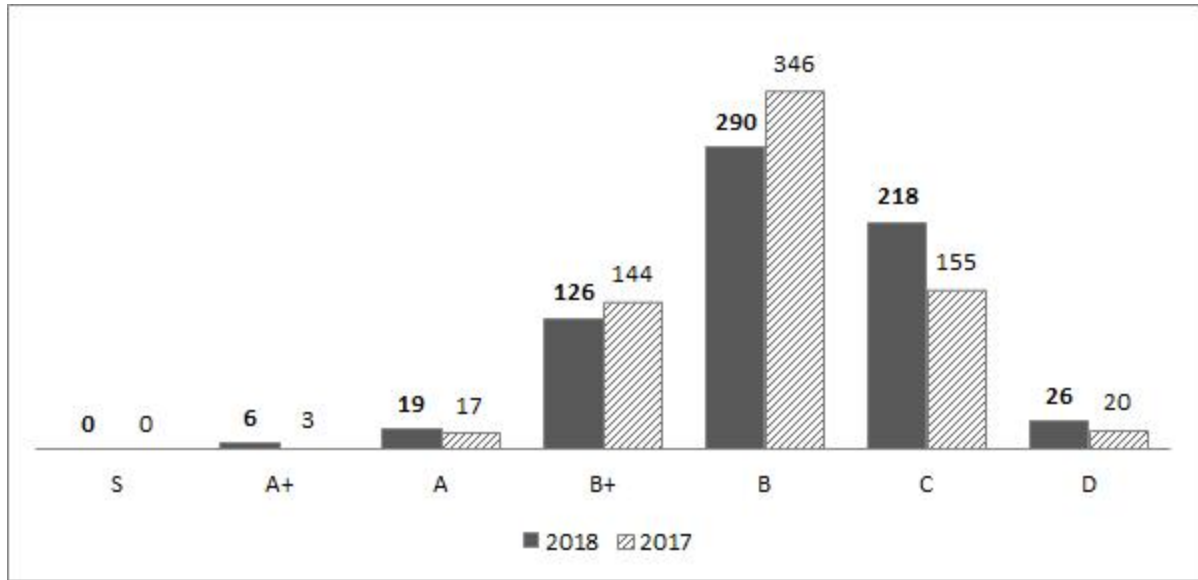
<표 3> 2018년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

등급	2018년		2017년*		비고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S	0	0%	0	0%	-
A+	6	1%	3	0%	▲ 0.4%p
A	19	3%	17	2%	▲ 0.3%p
B+	126	18%	144	21%	▽ 2.6%p
B	289	42%	346	51%	▽ 8.2%p
C	219	32%	155	23%	▲ 9.2%p
D	26	4%	20	3%	▲ 0.9%p
계	685**	100%	685	100%	-

* 하반기 등급조정(2018.02.28.결의)을 반영한 등급

** 일반 상장회사 843사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685사만 제시

<그림 1> 2018년 지배구조 등급 분포



- 전년 대비 등급이 변경된(상승 또는 하락) 기업은 모두 307사(44.8%)이며, 이중 등급 하락 기업(194사)이 상승 기업(113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2017-2018년 지배구조 등급 변동 현황

변동 내용	기업 수	비율
등급 상승	113	16.5%
등급 유지	378	55.2%
등급 하락	194	28.3%
계	685	100.0%

- (등급 상승 요인) 1)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CoE) 도입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관련 공시 개선, 2)이사회 의장 독립성 강화, 3)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및 감사기구 운영 개선 등이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임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55사(8.0%)로 전년대비 24사 증가함
-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인 기업은 641사(93.6%)로 전년대비 10사 감소하였고, 사외이사인 기업은 19사(2.8%)로 전년대비 4사 증가함
-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281사(41.0%)로 전년대비 10사 증가하였고 감사위원회 평균 개최횟수(4.2회 → 5.1회) 및 감사교육 실시 기업(5사 → 14사) 또한 증가함

- (등급 하락 요인) 심화평가 감점항목 확대 등으로 심화평가 적용을 받은 기업은 402사(58.7%)이며 이는 전년대비 52사 증가한 것으로 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장기연임 사외이사 재직 여부에 관한 신규 문항으로 총 88사가 감점됨
- 그 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 감사인 청구 등 소수주주권 관련 법적 분쟁으로 전년대비 감점이 증가함

2. 자산규모별 등급 현황

- 자산규모 2조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양호한 수준(B+ 이상)의 기업이 과반수(74사, 68.5%)를 차지한 반면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수준이 취약한 기업(B 이하)이 86.7%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규모별 등급 분포 격차의 주 원인은 현행 상법에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에게는 사외이사 선임,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것에 기인함¹⁾
- 그럼에도 2조 미만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하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1)감사위원회 설치 확대(164사, 28.3% → 173사, 30.0%),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확대(50사, 8.6% → 54사, 9.3%), 3)사외이사 선임을 법적기준 보다 초과하여 선임(223사, 38.5% → 232사, 40.2%) 등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표 5〉 자산규모별 지배구조 등급 현황

등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등급 간 차이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S	0	0.0%	0	0.0%	0.0%p
A+	5	4.6%	1	0.2%	▲ 4.4%p
A	14	13.0%	5	0.9%	▲ 12.1%p
B+	55	50.9%	71	12.3%	▲ 38.6%p
B	21	19.4%	268	46.4%	▽ 27.0%p
C	13	12.0%	206	35.7%	▽ 23.7%p
D	0	0.0%	26	4.5%	▽ 4.5%p
계	108	100.0%	577	100.0%	0.0%p

1)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①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선임 및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하고, ②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할 의무를 지며, ④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반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최소 1인 선임 및 이사회의 1/4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

3. 대규모기업집단별* 등급 현황

- ☐ 대규모기업집단별 등급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업집단마다 소속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등급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남
- ☐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등급이 모두 양호한 수준인 기업집단이 11개(21.6%)로 전년**보다 7개 증가함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성격의 계열회사 매입거래 축소, 공적·사법적 제재 발생·해소가 등급 변화에 영향을 미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전년 대비 전체 기업집단 수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침
- ☐ 그러나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등급이 모두 취약 수준인 기업집단이 20개(39.2%)에 이르러 그룹 차원의 관심과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2018.02.01.기준) 중 상장사가 1개 이상인 51개 기업집단이 대상이고 금융회사(롯데, 삼성, SK, 한화, 현대자동차, 농협, 미래에셋 그룹 해당)는 분석에서 제외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강화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미도입으로 26개 기업집단(2016.12.30.기준)이 대상임

<표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등급 현황*

#	기업집단	양호군			취약군			소속 상장사 수	양호군 비율 (전년도 비율)**
		A+	A	B+	B	C	D		
1	에쓰오일	1	-	-	-	-	-	1	100%(100%)
2	케이티앤지	1	-	-	-	-	-	1	100%(-)
3	두산	-	5	2	-	-	-	7	100%(100%)
4	롯데	-	2	6	-	-	-	8	100%(38%)
5	현대백화점	-	1	6	-	-	-	7	100%(86%)
6	대우건설	-	-	1	-	-	-	1	100%(100%)
7	대우조선해양	-	-	1	-	-	-	1	100%(0%)
8	현대중공업	-	-	2	-	-	-	2	100%(100%)
9	씨제이	-	4	4	1	-	-	9	89%(89%)
10	하림	-	-	5	1	-	-	6	83%(-)
11	지에스	-	-	5	-	1	-	6	83%(83%)

12	엘지	-	-	9	2	-	-	11	82%(82%)
13	케이티	-	1	6	2	-	-	9	78%(78%)
14	포스코	1	-	3	2	-	-	6	67%(67%)
15	삼성	-	4	4	3	1	-	12	67%(58%)
16	신세계	-	-	4	2	1	-	7	57%(29%)
17	에스케이	2	1	6	3	3	1	16	56%(71%)
18	한화	-	1	1	1	1	-	4	50%(50%)
19	현대자동차	-	-	5	2	3	-	10	50%(20%)
20	대림	-	-	1	3	-	-	4	25%(50%)
21	오씨아이	-	-	1	-	5	-	6	17%(20%)
22	금호아시아나	-	-	-	2	-	-	2	0%(0%)
23	미래에셋	-	-	-	1	-	-	1	0%(0%)
24	엘에스	-	-	-	5	1	-	6	0%(17%)
25	케이씨씨	-	-	-	1	1	-	2	0%(-)
26	한진	-	-	-	2	2	-	4	0%(25%)
27	영풍	-	-	-	2	4	-	6	0%(0%)
28	효성	-	-	-	2	4	-	6	0%(17%)
29	농협	-	-	-	-	1	-	1	0%(0%)

〈표 7〉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등급 현황*

#	기업집단	양호군			취약군			소속 상장사 수	양호군 비율 (전년도 비율)**
		A+	A	B+	B	C	D		
1	삼천리	-	-	1	-	-	-	1	100%(-)
2	카카오	-	-	1	-	-	-	1	100%(-)
3	태영	-	-	1	-	-	-	1	100%(-)
4	한라	-	-	2	1	-	-	3	67%(-)
5	한솔	-	1	5	3	2	-	11	55%(-)
6	동국제강	-	-	1	1	-	-	2	50%(-)
7	아모레퍼시픽	-	-	1	1	-	-	2	50%(-)
8	코오롱	-	-	2	2	-	-	4	50%(-)
9	현대산업개발	-	-	1	-	1	-	2	50%(-)

10	한진중공업	-	-	1	1	1	-	3	33%(-)
11	네이버	-	-	-	1	-	-	1	0%(-)
12	동부	-	-	-	2	-	-	2	0%(-)
13	셀트리온	-	-	-	2	-	-	2	0%(-)
14	태광	-	-	-	1	1	-	2	0%(-)
15	하이트진로	-	-	-	1	1	-	2	0%(-)
16	한국타이어	-	-	-	1	1	-	2	0%(-)
17	세아	-	-	-	1	3	-	4	0%(-)
18	SM	-	-	-	-	3	-	3	0%(-)
19	금호석유화학	-	-	-	-	1	-	1	0%(-)
20	넥슨	-	-	-	-	1	-	1	0%(-)
21	동원	-	-	-	-	2	-	2	0%(-)
22	이랜드	-	-	-	-	1	-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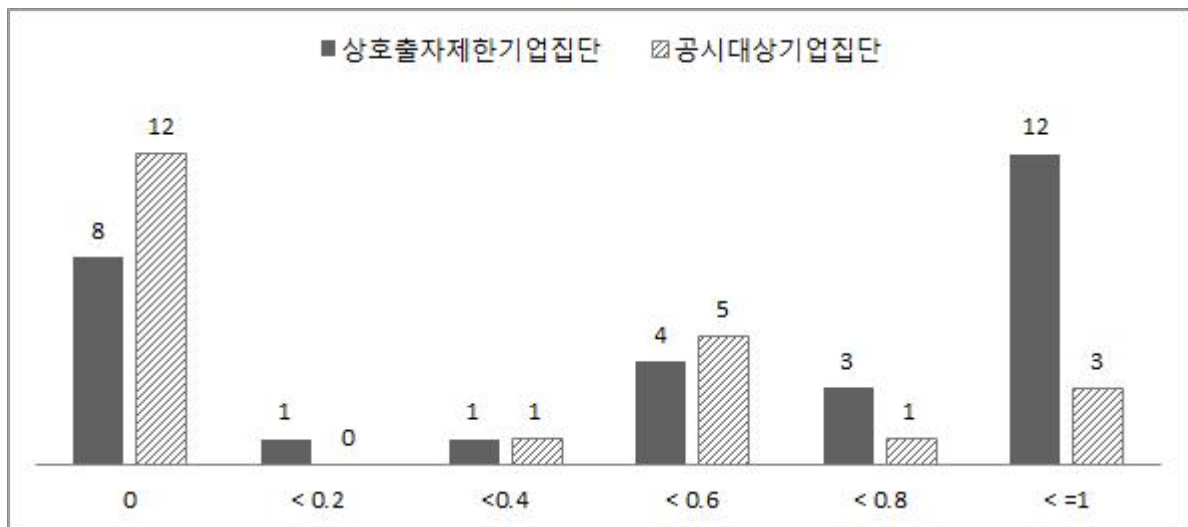
* 양호군 비율 내림차순, 각 등급에 가중치를 부여한 등급 평균 내림차순, 기업집단명 오름차순 정렬

** 금융회사 제외, 기업집단지정 이전인 경우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9개)이 공시대상기업집단(22개)보다 양호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58.6%(17개)가 과반수 양호 기업집단인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54.5%(12개)가 전체 취약 기업집단임

<그림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양호군 비율 분포*



* 양호군 비율 구간별 분포

III.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현황

1.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모형 개발 목적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8년부터 금융회사에 특화된 지배구조 평가모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을 부여·공표함
 -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보다 상향된 지배구조 수준이 요구되는 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금융회사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함
 - 일반 상장사와 구분하여 실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 부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이 금융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용이하게 인지하고 이를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2.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모형 요약

- (평가 범위) 금융사지배구조법 전부 적용사 및 상장 금융사를 대상으로 평가 수행
 - 총 87사 평가(금융지주 9사, 은행 15사, 금융투자업 27사, 보험 28사, 여신전문업 8사)
 - 모형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별 특성에 따라 총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 ① 지주체계, ② 상장, ③ 1인 주주 회사, ④ 개인 지배주주 존재, ⑤ 금융사지배구조법 전부 적용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
 - 유형별 만점이 상이하므로 회사에게 적용되는 유형별 만점 대비 득점률로 환산한 점수를 토대로 비교함
- (평가 문항) 정량평가(기본평가 및 심화평가) 및 정성평가(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방법론은 기존의 일반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방법과 동일하나, 정량평가 중 특히 기본평가모형의 경우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새로이 개발하여 기존 평가모형과 크게 차별화됨
 - 금융회사에서 강조되는 지배구조 영역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신설(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보수체계, 위험관리, 내부통제, 연차보고서 공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배당수준)하고, 금융사지

배구조법상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평가문항은 개정함 [금융회사 지배구조 기본평가모형의 총 156개 문항 중 기존 일반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모형에서 계수한 문항은 20문항 (12.8%)에 불과]

3.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기준

-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등급 부여
 - (정량기준) A+ 이상 등급 및 D등급 산정시 절대평가를 활용하되, 그 외의 등급 산정은 상대평가를 활용
 - (정성기준) 정량기준에 의해 A등급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중 심층인터뷰 결과(월등 / 우수 / 보통 · 거절 / 열악)에 따라 등급(S / A+ / A / B+) 부여

4.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요약

가.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현황

- 금융회사가 상위등급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던 2017년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2018년 평가등급은 각 등급에 걸쳐 고르게 분포
 - 2017년도 평가 시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된 단일 평가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급은 전반적으로 높은 등급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었음.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반 상장사보다 상향된 수준의 지배구조가 요구되고 있어 금년 평가부터는 금융회사에 특화된 모형을 적용하여 보다 실질적 지배구조 평가를 수행함
 - 금년에 금융회사에 적용된 평가 모형은 2017년의 평가 모형과 다르므로 등급 분포가 전반적으로 하향되었다고 하여 전년 대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작년 평가와의 직접적 비교는 어려움
- 금융회사 전체 평균 등급은 B+이며, 양호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A+, A, B+ 기업의 비율이 대다수(70.1%)를 차지

<표 8> 2017-2018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

등급	2018		2017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S	0	0.0%	1	2.1%
A+	3	3.4%	0	0.0%
A	23	26.4%	36	75.0%
B+	35	40.2%	9	18.8%
B	17	19.5%	2	4.2%
C	8	9.2%	0	0.0%
D	1	1.1%	0	0.0%
계	87	100.0%	48	100.0%

* 금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은 A 등급 이상의 기업명단만 공개하고, 2019년에는 'B+' 까지, 2020년에는 전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급을 공개할 예정임

□ 금년 평가결과 금융회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제도의 구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연차보고서 공시의 경우 연차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부분의 누락은 적은 편이나, 기재 내용의 충실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보상 관련 평가의 경우 보수위원회의 구성 등 기본적 제도의 구비를 묻는 문항에서 고득점을 하였으나, 보상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임원 선임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 및 운영 수준을 묻는 문항은 업권을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득함
 - 최고경영자 승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제도의 구비 및 운영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득함
 - 이사회내 위원회 중 위험관리위원의 선임 관련 제도 및 운영을 묻는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득함

나. 업권별 등급 현황 분석

- 금융지주, 은행, 여신금융업, 보험, 금융투자업 순으로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지주 및 은행업 소속 회사 중 취약군에 해당하는 등급(B 이하)에 속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 평가 결과 상위 등급에 분포한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경우 전체 업권을 통틀어 기본평가 내 각 평가 주제별 영역*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수준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됨
-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 전 업권 내 차상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보수위원회 구성과 건전한 보상체계 운영을 평가하는 보상 영역에서는 다소 낮은 순위를 보임
- 일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특정 수준의 자산규모 기준에 미달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일부만을 적용받으나 동 법률을 기반으로 제정된 평가모형을 통해 다소 엄격하게 평가됨에 따라 하위 등급에 분포되는 경향성을 보임

*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최고경영자, 보상,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공시, 이하 7개 영역

<표 9> 업권별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현황

(괄호 안은 행 기준 회사 비율)

업권	등급 평균	양호군			취약군			평가대상 회사 수
		A+	A	B+	B	C	D	
금융지주	A	3 (33.3%)	2 (22.2%)	4 (44.4%)	-	-	-	9
은행	A	-	9 (60.0%)	6 (40.0%)	-	-	-	15
여신금융	B+	-	4 (50.0%)	3 (37.5%)	1 (12.5%)	-	-	8
보험	B+	-	7 (25.0%)	10 (35.7%)	10 (35.7%)	1 (3.6%)	-	28
금융투자	B	-	1 (3.7%)	12 (44.4%)	6 (22.2%)	7 (25.9%)	1 (3.7%)	27

□ 업권별 지배구조 평가 상위기업은 다음과 같음

업권	특점률 상위사	등급 평균
금융지주	KB금융지주	A+
은행	국민은행	A
여신금융	신한카드	A
보험	KB손해보험	A
금융투자	메리츠증권	A

2017 ESG 등급 수시 조정

(1) 등급 조정 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사회 등급을 수시 조정함

#	회사명	쟁점사안	등급 변동
1	대한항공	(S)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로자 안전보건 위험 우려	B+ → <u>C</u>
2	하나금융지주	(S) 검찰 채용비리 혐의로 하나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 및 은행 기소	A → <u>B+</u>
3	KB금융지주	(S) 검찰 채용비리 혐의로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 및 은행 기소	A → <u>B+</u>
4	DGB금융지주	(S) 검찰 채용비리 혐의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 기소	A → <u>B+</u>
5	BNK금융지주	(S) 검찰 채용비리 혐의로 부산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A → <u>B+</u>

(2) 등급 조정 세부내용

대한항공 (003490)	조정 부문 사회	조정 내용 B+ → C	조정 정도 ▼ 2
<p>1. 근로자 및 협력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의 근로자 및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 조직적 밀수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동원,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저해 우려 <p>2.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환경 측정에서 독성물질 검출 논란, 안전보건 부실 의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5.10.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에 보건진단 명령을 내림 <p>※ 진단이유 :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선정</p>			
CGS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형적인 사회책임경영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전반(근로자, 협력사, 국가 등)에 대한 책임경영 체계가 양호하게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움 <p>※ 대한항공은 2017년 등급부여 시에도 항공기 안전규정 위반 및 정비 부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회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등급이 조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피해 예방 체계 부실 우려 		
출처	<p>[조선닷컴] “니가 뭔데” “에이 XX” 대한항공 간부, 조현민 추정 욕설 파일 공개(2018.4.15.)</p> <p>[조선닷컴]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 11일 검찰 송치” (2018.5.10.)</p> <p>[연합뉴스] 인천세관, 밀수탈세 혐의 조현아 세 번째 소환 조사(종합)(2018.7.3.)</p> <p>[조선일보] 고용노동부, 대한항공 ‘갑질’ 실태 조사(2017.11.13.)</p> <p>[노컷뉴스] 노동부, 대한항공에 보건진단명령... “업무상 질병 위험 높아” (2018.05.16.)</p>		

2018.7.

1 / 5

하나금융지주 (086790)	조정 부문 사회	조정 내용 A → B+	조정 정도 ▼ 1
<p>검찰, 하나은행(비상장 완전자회사) 및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 성차별 채용, 학력차별 등 채용비리 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 명부를 작성·관리하여 서류면접을 통과시켜 주거나 감점사유 점수를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격 대상자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대상 청탁건수 총 222건(내부청탁 19건 및 외부청탁 203건) - (성차별채용) 남녀비율 사전 설정 및 성별에 따른 별도의 커트라인 적용 - (학력차별) 특정 대학 출신 선발을 위한 점수 조작 			
CGS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절차의 불공정성이 우려되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출처	<p>[금융감독원]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2018.04.02.) [대검찰청 반부패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2018.06.18.)</p>		

2018.7.

2 / 5

KB금융 (105560)	조정 부문 사회	조정 등급 (조정 전) A → B+	조정 정도 ▼ 1
<p>검찰, KB국민은행(비상장 완전자회사) 및 전현직 임직원 4명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 내부채용비리문화, 성차별 채용 혐의 - (청탁) 청탁대상자의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합격자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대상 청탁건수 총 143건(내부청탁 12건 및 외부청탁 131건) - (내부채용비리문화)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행장 자녀와 동명이인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켰다가 면접단계에서 탈락시킴 - (성차별채용) 점수 조작, 합격 여부에 성차별적 영향 			
CGS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절차의 불공정성이 우려되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출처	[대검찰청 반부패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2018.06.18.)		

2018.7.

3 / 5

BNK금융지주 (138930)	조정 부문 사회	조정 등급 (조정 전) A → B+	조정 정도 ▼ 1
<p>검찰, 부산은행(비상장 완전자회사) 및 전현직 임직원 10명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 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청탁) 전 부산은행장의 외손녀의 최종면접점수를 조작 - (외부청탁) 시금고·도금고 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로부터 받은 채용청탁에 대해 점수조작 ※ 기소대상 청탁건수 총 3건(내부청탁 1건 및 외부청탁 2건) 			
CGS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절차의 불공정성이 우려되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정·관계 인사의 자녀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저해가 우려됨 		
출처	[대검찰청 반부패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2018.06.18.)		

2018.7.

4 / 5

DGB금융지주 (139130)	조정 부문 사회	조정 등급 (조정 전) A → B+	조정 정도 ▼ 1
<p>검찰, 대구은행(비상장 완전자회사) 및 전현직 임직원 8명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 증거인멸교사 혐의 - (청탁) 청탁대상자의 평가점수 또는 자격조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합격자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대상 청탁건수 총 24건(내부청탁 5건 및 외부청탁 19건) - (증거인멸)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의 컴퓨터 교체 및 채용관련 서류 폐기 			
CGS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절차의 불공정성이 우려되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주요 직위자의 증거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윤리강령의 준수 체계가 우수하게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대검찰청 반부패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2018.06.18.)		

2018.7.

5 / 5

첨부. 2018년 지배구조 등급별 기업 리스트

1. 일반 상장회사 지배구조 등급

등급	기업명				
S (-)	-				
A+ (6사)	SK 풀무원	SK텔레콤	S-Oil	케이티앤지	포스코
A (19사)	CJ 두산밥캣 롯데하이마트 한솔제지	CJ CGV 두산엔진 삼성물산 한화	CJ헬로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엔지니어링 현대홈쇼핑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호텔신라	두산 롯데케미칼 케이티
B+ (126사)	BYC GS글로벌 LG LG이노텍 NHN엔터테인먼트 SK네트웍스 광주신세계 대성홀딩스 동아에스텍 롯데정밀화학 미원상사 삼천리 신도리코 쌍용자동차 엔에스쇼핑 이구산업 제일기획 카카오 토니모리 한국가스공사 한라홀딩스 한솔홈데코 해성디에스 현대리바트 현대엘리베이터 휴비스	CJ대한통운 GS리테일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OCI SK디스커버리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동원금속 롯데지주 빙그레 삼화페인트공업 신세계건설 씨에스윈드 우리종금 이노션 제주항공 케이티스 팬오션 한국셀석유 한섬 한온시스템 현대건설 현대미포조선 현대위아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상사 LG화학 SH에너지화학 SK하이닉스 대교 대우조선해양 두산건설 롯데칠성음료 삼성SDI 서연이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그룹 유니켄 이마트 지역난방공사 코스모신소재 포스코강판 한국전력공사 한세엠케이 한전KPS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GS KISCO홀딩스 LG생활건강 LIG넥스원 SKC SPC삼립 대구백화점 대원제약 락앤락 롯데푸드 삼성에스디에스 선진 신흥 아이마켓코리아 유니퀘스트 인터지스 참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포스코대우 한국항공우주 한솔케미칼 한진중공업홀딩스 현대글로벌비스 화성산업	GS건설 KTcs LG유플러스 NAVER SK가스 강원랜드 대림산업 도화엔지니어링 롯데쇼핑 만도 삼성전자 세방 쌍용양회공업 엔씨소프트 유수홀딩스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천일고속 태영건설 풍산홀딩스 한독 한솔홀딩스 한화케미칼 현대로템 현대에이치씨엔 한인제약

B (289사)	AJ렌터카	BGF	CJ씨푸드	CS홀딩스	DB
	DB하이텍	E1	GKL	JW생명과학	JW홀딩스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KEC	KPX그린케미칼	KPX케미칼
	KPX홀딩스	KSS해운	LF	LG전자	LS네트웍스
	LS산전	LS전선아시아	NICE	S&TC	S&T모티브
	S&T중공업	S&T홀딩스	SBS	SBS미디어홀딩스	SIMPAC
	STX	STX엔진	WISCOM	가온전선	강남제비스코
	경동나비엔	경보제약	계룡건설산업	계양전기	고려개발
	고려산업	광동제약	광전자	국동	국제약품
	극동유화	금호산업	기신정기	까뮤이앤씨	깨끗한나라
	남광토건	넥센	넥센타이어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녹십자	다우인큐브	대경기계기술	대덕GDS	대덕전자
	대림비앤코	대림씨엔에스	대림통상	대상	대상홀딩스
	대양금속	대우부품	대원강업	대창	대창단조
	대한전선	대한제강	대한제당	대한항공	대한화섬
	대현	더존비즈온	동국제강	동부제철	동서
	동성코퍼레이션	동성화학	동아에스티	동아지질	동양
	동양고속	동양네트웍스	동원수산	동일방직	동일제강
	동화약품	두울	디씨엠	디아이	디와이
	디와이파워	디티알오토모티브	디피씨	롯데관광개발	만호제강
	명문제약	모나미	모토닉	무림P&P	무림페이퍼
	무학	문배철강	미래산업	미원홀딩스	미창석유공업
	방림	보락	보해양조	부광약품	부국철강
	부산도시가스	비상교육	사조동아원	사조씨푸드	사조오양
	삼성공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삼성출판사	삼아알미늄
	삼양사	삼양홀딩스	삼영전자공업	삼영화학공업	삼원강재
	삼익THK	삼일제약	삼진제약	삼호	삼화왕관
	삼화전기	삼화콘덴서공업	상신브레이크	새론오토모티브	샘표
	샘표식품	서연	서울도시가스	서울식품공업	서원
	서흥	선도전기	성보화학	성신양회	세기상사
	세아특수강	세원정공	세진중공업	세하	셀트리온
	수산중공업	신세계	신세계I&C	신송홀딩스	신일산업
	신풍제약	신풍제지	써니전자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아이에이치큐	아티스	알보젠코리아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엔피씨	영원무역	영진약품	영풍	영화금속
	영흥철강	에스코	오뚜기	용평리조트	우진
	우진플라임	웅진	웅진에너지	월비스	유나이티드
	유성기업	유양디앤유	유유제약	유한양행	울촌화학

	이연제약	인디에프	인천도시가스	인팩	일동홀딩스
	일성건설	일성신약	일신방직	일양약품	일진디스플레이
	일진머티리얼즈	일진홀딩스	잇츠한불	제일연마	제일파마홀딩스
	조광피혁	조선선재	조흥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종근당홀딩스	지엠비코리아	지투알	진양산업	진양홀딩스
	카프로	케이씨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코리아오토글라스	코스맥스
	코스맥스비티아이	코스모화학	코아스	코오롱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인더	코오롱플라스틱	코웨이	쿠쿠홀딩스	크라운태홀딩스
	태원물산	태평양물산	텔코웨어	티비에이치글로벌	티에이치엔
	팀스	파미셀	팜스코	퍼스텍	퍼시스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폴루스바이오팜	풍산	하나투어
	하이스틸	하이트론시스템즈	하이트진로홀딩스	한국단자공업	한국수출포장공업
	한국제지	한국종합기술	한국철강	한국카본	한국타이어
	한국화장품	한농화성	한라	한미글로벌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한샘	한세실업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테크닉스
	한신공영	한신기계공업	한올바이오파마	한익스프레스	한전기술
	한진	한화테크윈	해태제과식품	한즈코퍼레이션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현대약품	현대자동차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화승알앤에이
	화승엔터프라이즈	화인베스틸	화천기공	☐☐ ITX	후성
	휠라코리아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휴스틸	휴켄스	
C (219사)	AJ네트웍스	AK홀딩스	DRB동일	DSR	DSR제강
	F&F	KGP	KR모터스	LS	MH에탄올
	SG세계물산	SG총방	SK디앤디	TCC동양	YG PLUS
	갤럭시아에스엠	경농	경동인베스트	경방	경인양행
	경인전자	고려아연	고려제강	국도화학	국보
	금강공업	금비	금양	금호석유화학	금호에이치티
	금호전기	기아자동차	나노메딕스	남선알미늄	남성
	남양유업	남영비비안	남해화학	녹십자홀딩스	농심
	농심홀딩스	다우기술	대동공업	대동전자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대영포장	대웅	대웅제약	대원전선
	대원화성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한방직	대한유화
	대한제분	대한해운	대호에이엘	덕성	덕양산업
	동국실업	동남합성	동방	동방아그로	동성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양물산기업	동원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
	동일고무벨트	동일산업	디아이씨	마니커	메디플란트

	모나리자	미래아이앤지	미원화학	백광산업	백광소재
	백산	범양건영	벽산	보령제약	부산산업
	부산주공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해표	삼광글라스
	삼성제약	삼양통상	삼영무역	삼익악기	삼정펄프
	삼호개발	삼화전자공업	선창산업	성문전자	성안
	성창기업지주	세방전지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세우글로벌	세원셀론텍	세이브존I&C	세종공업	신라교역
	신성이엔지	신성통상	신세계푸드	신원	신화실업
	쌍방울	씨아이테크	아남전자	아비스타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제지	아이에스동서	아이콘트롤스	알루코
	애경유화	에넥스	에스엘	에스원	에쓰씨엔지니어링
	에이엔피	에이프로젠KIC	엔케이	영보화학	영원무역홀딩스
	영풍제지	오리엔트바이오	와이비로드	우리들제약	우리들휴브레인
	우성사료	우신시스템	웅진씽크빅	원림	유니드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유엔젤	이건산업	이수페타시스
	이수화학	이스타코	이아아이디	이월드	이화산업
	인스코비	일동제약	일신석재	일정실업	일진다이아
	일진전기	자화전자	전방	제이준코스메틱	조광페인트
	조비	조일알미늄	주연테크	지코	진도
	진양폴리우레탄	진양화학	진원생명과학	진흥기업	체시스
	케이씨씨	케이씨티시	코리아씨키트	콤텍시스템	태경산업
	태경화학	태광산업	태림포장	태양금속공업	티웨이홀딩스
	페이퍼코리아	필룩스	하이트진로	한국공항	한국석유공업
	한국유리공업	한국전자홀딩스	한국주강	한국콜마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프랜지공업	한국화장품제조	한미사이언스	한성기업	한세에스24홀딩스
	한솔피엔에스	한일철강	한진중공업	한진칼	한창
	한창제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현대EP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시멘트
	현대제철	현대종합상사	형지엘리트	헤인	화신
	화천기계	황금에스티	효성	흥아해운	
D (26사)	KG케미칼	NI스틸	광명전기	동양철관	동원F&B
	삼양식품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송원산업	신대양제지
	신영와코루	신한	에이블씨엔씨	에이프로젠제약	엔케이물산
	오리온홀딩스	인지컨트롤스	조선내화	청호컴넷	키위미디어그룹
	한국내화	한국주철관공업	한국콜마	한일시멘트	한전산업
	화승인더스트리				

※ 등급조정된 회사는 굵은 기울임체로 표시함

2.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등급	기업명					
S (0사)	-					
A+ (3사)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A (23사)	국민은행	DGB생명보험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롯데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	메리츠증권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카드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은행	코리안리	하나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	현대해상			
B+ (35사)	-					
B (17사)						
C (8사)						
D (1사)						

※ 평가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하나, 평가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A' 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며, 2019년에는 'B+'까지, 2020년에는 전체 등급을 공개할 예정임

※ 기업별 등급은 KCGS 홈페이지(http://www.cgs.or.kr/business/esg_tab04.jsp)에서도 확인 가능함